



"가을에 못 지낸 제사를 봄에는 지낼까"

뜻: 형편이 좋을 때도 꼭 해야 할 일을 못 했는데, 형편이 더 어려울 때 체면 때문에 힘든 일을 억지로 해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형편 · 능력 · 체면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가	을	에	↘	못	↘	지	낸				
제	사	를	↘	봄	에	는	↘	지	낼	까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가	을	에	↘	못	↘	지	낸				
제	사	를	↘	봄	에	는	↘	지	낼	까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ㄱㅇㅇ] [ㄹ] [ㅈㄴ] [ㅈㅅㄹ] [ㅂㅇㄴ] [ㅈㄴㅇ]

웹에서 보기

